

제목: "성령의 역사"

말씀: 사도행전 4장 32-37절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을 때에 말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에 큰 위로를 받지만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의 아주 작은 한 가지 현상일 뿐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사모해야 할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 1) 나의 것을 _____ 주게 하십니다. (32절)
- 2) 나로 하여금 _____하게 하십니다. (33절)
- 3) 주의 일에 _____하게 하십니다. (36-37절)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뉴저지)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선교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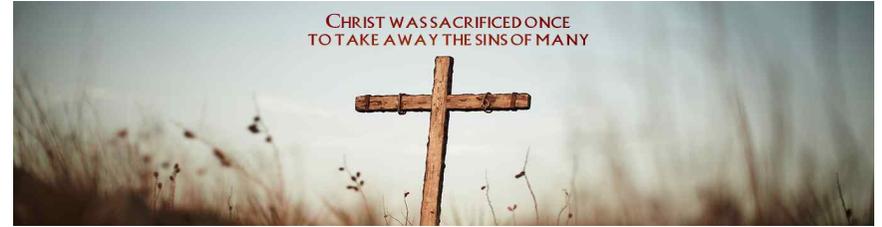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Let us Give a Brand New Heart to God" (2 Corinthians 5: 17)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nt: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nt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사도행전 4장 32-37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Acts 4:32-37 193 페이지 President
- 말씀 "성령의 역사" 김성민 목사
Message The work of the Holy Spirit Rev. Kim
- 성찬식 다같이
Communion All Together
-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nt
- * 찬양/헌신기도 주님 내가 여기있사오니 다같이
Praise and Prayer Lord Here I am All Together
- * 축도 설교자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너무 뜨거운 열기)

미국 동부에 살면서 목회를 잠깐 쉬고 있었을 때 예배 드릴 교회를 찾다가 뉴욕 부르클린에 있는 부르클린 타버나클 교회(Brooklyn Tabernacle)를 찾아 갔다. 그 날은 추운 겨울이었는데 주일 오전 11시라는 예배 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부지런히 도착한 것이 오전 10시 25분이었는데 교회 앞에는 11시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벌써 줄이 길었다. 추운 날인데도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서 예배하며 은혜 받기 위하여 예배 시작 전 벌써부터 와서 기다린 것이다. 그렇게 일찍 도착하여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는 것 자체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했다.

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나오는 사람들을 기다리며 그들의 얼굴을 보는 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얼굴 속에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것 또한 은혜 그 자체였다. “오늘은 어떠한 은혜가 있었기에 이렇게 좋을까?” 나도 그 은혜를 받고자 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 되면서 찬양이 시작되는데 그 열기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120여명의 찬양 대원들이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성령의 은혜가 나를 뒤집어쓰우시는 것 같았다. 성령의 가마니를 뒤집어쓰는 것 같았다는 것이다. 얼마나 뜨거운 지 그 기쁨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나의 가슴을 찌르고 가슴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그 때 이 교회에서 저 찬양 대원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봉사하며 찬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가 종사오니 내려가지 말게 하소서”하며 예배를 드렸다.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의 쏘(Show)일까? 사람들이 잘 기획해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절대 아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곳에서 깨달은 은혜였다.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서 사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그 뜨거운 열기의 은혜가 아니면 어디서도 힘을 얻을 길 없는 사람들이다. 성령 하나님을 더욱 환영하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슴이 뜨거운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7-18절)라고 말씀하신다. 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늘 채우신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마음껏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2021년에는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6) 열심히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과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 10) St. Andrew's 교회 사역을 위하여

(5월 30일 모든 교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 Covid-19 에서의 온 가족 안전
특별히 사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Silk Wave 선교회: 터키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하여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5월 중에는 새벽기도회 후에 친교가 없습니다.

4. 6월 생명의 삶

생명의 삶 6월호를 받아 가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5. 5월 모임

5월 23일 성령 강림주일

6. 교역자 동정

담임 목사 뉴욕 방문 5월 28-31일

7. 다음 주일

다음 주일(5월 30일)에는 안재천 목사님께서 오셔서 주일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8.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